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5호 [루게 제23167호] 주체99 (2010)년 8월 3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범기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홍석형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류현식동지를 비롯한 도와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비날론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비날론목포를 쏟아내여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생산에서 계속혁신, 계속진전을 이룩하고있다.

순간의 침체나 담보를 모르고 새로운 고지를 향하여 거세한 전군을 다그치고있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비날론술이 폭포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더욱 활짝 꽃피울 충성의 일념을 안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75t 순환비등중보이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비날론술의 질을 훨씬 높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기업소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훌륭히 건설된 대화학섬유생산기지 2. 8비날론련합기업소는 날을 따라 최첨단의 면모를 갖추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인 2. 8비날론련합기업소가 용을 쓰며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에 비롯한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망계획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수직방사직장, 견적직업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비약의 한길로 출발음침으로써 종전같으면 몇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능력확장공사를 불과 몇개월사이에 훌륭히 끝내데 대하여 커다란 만찬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장건 65톤이 되는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분초를 다투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비날론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비날론술의 질을 급격히 높인데 대해 치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방사기들과 견적,련조기들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질 좋은 비날론을 격정에 넘쳐 보고보고 또 보시면서 흰눈같이 하얗고 명주처럼 부드러운 비날론술이 무지를 이룬 꿈같은 현실을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며 이제 우리 인민들이 실제로 비날론먹을 볼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나라의 이르는 곳

마다에서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적선물들이 련이어 마련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2. 8비날론련합기업소가 또다시 통장훈을 불렀다고 하시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기업소로동계급의 수고를 거듭 높이 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우리 로동계급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를 비롯한 혁명의 간고한 시기에 오직 혁명의 리익만을 생각하며 전심전력을 다한 전위투사들이었다고 하시면서 빈터에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던 그날의 그 정신으로 언제나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공장이므로 그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대상건설과 과학기술개조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기업소에서 튼튼히 축성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가치수를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기업소에서 비날론중간체로부터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밀폐식카바이드 전기로들과 합성탑들을 새로 건설하며 방향족화합물생산공정과 합성연유생산공정을 완성하여 화학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소를 전망성있게 꾸리는데서 결리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력사적인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오시여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사를 드리면서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끊임 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2. 8 비 날 론 련 합 기 업 소 를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끊임 없는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있는 2. 8 비 날 론 련 합 기 업 소 를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끊임 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2. 8 비 날 론 령 합 기업 소 를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 선군정치는 민족자주와 평화실현의 위대한 기치 대결 광의 생 때 질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정치군사적도발운동이 날로 악화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내외적대세력들의 대결전쟁행동이 아무리 우습하여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와 그 산아인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천원압반처럼 굳게 자리잡고 있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결쟁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의 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있다. 내외호전세력의 악랄한 북침전쟁도발행동중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가 굳건히 유지되고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안전을 누리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선군정치의 덕이다.

현실은 우리의 선군정치, 자위적국방력이 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은 믿음직하게 담보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꺾을때다 짓부시고 조국통일행동을 보위하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권위를 세계에 높이 떨치게 되였으나.》

정치의 위력은 그것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담보하고 빛내여주는때다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선군정치는 군사중시, 군사선형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면서 그를 혁명의 수력원으로 내세워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 평화를 수호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의 발현이다. 선군정치는 자주와 존엄의 위대한 기치로, 혁명승리의 위대한 보검으로, 평화의 상선으로 되고있다.

선군의 기치에는 강한 국력에 대한 민족의 세기적욕망을 실현함으로써 외세의 침략과 도전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우리 당의 철칙의 의지가 숨배여있다.

국력이자 권력이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은 권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권력이 약하면 나라가 망할수밖에 없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치를 굴욕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강한 권력에 대한 갈망은 더없이 크다.

강한 권력에 대한 인민의 갈망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 무결하게 실현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무적의 권력으로 힘아하여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민족수난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존엄의 세력사를 창조하여 조선민족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우주었다.

선군의 기치아래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반만년 빈곤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풍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온 세상에 힘있게 펼쳐지고있다. 선군정치가 있기에 그 누구도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지 못한다.

선군의 기치에는 평화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실현하고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 불변한 결심이 어려웠다.

평화는 민족의 존재와 발전의 필수 조건적이다. 평화를 떠나 민족의 안전에 대해 말할수 없고 번영과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미제의 정치군사적공격의 예봉은 반제자주적, 민족중추에 들러지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북침행진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험적인 선제공격을 기도하고있으며 유엔무대를 통한 국제적인 반공화국포위망을 형성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최근에는 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일각진 미제는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조선통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대규모해상연습행동을 광범적으로 감행하였다. 이 전쟁연습은 침략무력의 타격능력, 실전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전반적인 침략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내외호전세력은 오는 9월에 서해에서 이러한 전쟁연습을 또다시 감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우리 인민과 평화호세력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여놓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극히 부분별한 도발행동이다.

선군정치는 미국과 그 일잡이들의 거듭되는 북침전쟁도발행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예국의 방패이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기치 아래 내외침략자들의 악랄한 군사적도발행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최고리익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고있다.

선군의 위력이 있기에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유지되고 온 겨레의 안전이 담보되고있으며 우리 겨레는 선군이 열어준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민족자주, 민족중추에 기초하여 힘

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반통일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시련과 난관을 겪고있다. 하지만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조국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외세의존을 정책화하고 동족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으나 6.15 통일시대는 선군정치가 펼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필승의 선군정치가 있는 한 조국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은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이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심이며 락관이다. 앞으로도 무적의 선군총대가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온 민족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에 동원하고 고무추동하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정당 강한 국력에 대한 겨레의 세기적욕망과 자주와 평화, 통일에 대한 민족의 념원을 실현시켜주고있는 참다운 민족자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인 선군정치가 있기에 우리 공화국의 권위가 그처럼 당당하고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있는것이다.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고 더없는 긍지이다.

선군이 없으면 우리 민족도 없다. 이것은 진리이다. 지금 온 겨레가 애국의 한마음으로 선군정치를 열렬히 지지옹호하고 전진으로 발돋와하고 있는것은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선군은 승리이다.

온 겨레는 선군정치가 민족자주도 평화번영도 있음을 깊이 명심하고 선군정치의 적극적인 지지자, 철저한 옹호자가 되어야 할것이다.

한 동 찬

##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창건 83돐 기념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창건 83돐을 기념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중국군방부는 7월 31일 베이징의 인민대회장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량광평이 연회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중국인민해방군은 창건 후 지난 83년동안 공산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 나라의 안정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하였으며 근대의 혁명, 현대화, 정규화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근대건설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여 그는 사상정치건설을 첫걸음으로 놓고 현대화건설의 비약적발전을 계속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군의 지휘관, 병사들이 호교도동기를 충서기로 하는 당중심의 령도밑에 과학적 발전권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사업을 착실하게 하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국방 및 근대건설의 흥룡하고도 빠른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부여한 임무를 절실히 완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인민해방군창건 83돐 경축공연이 7월 24일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각 부대들에서 응원대회와 사회화람회, 체육경기,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졌다.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과격을 반대

스페리에인들속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과격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7월 29일 이 나라에서 발간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7월 29일 이 나라에서 발간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7월 29일 이 나라에서 발간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 산 불 피해

보르투갈의 북부와 중부지역에서 7월 27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아베이라, 꼬임브라, 케이라 등지의 18개소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많은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고 집은 연기로 도로들이 차단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 월간국제정세개관

### 평화의 원수들은 전쟁만을 추구한다

평화에 역행하고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은 날로 더욱 악화되고있다. 지난 7월의 국제정세흐름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난 7월에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정세가 가장 긴장하고 첨예한 열점지역으로 화하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기 위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여나갔다. 지난 3월 충격적인 특대형남공화국도발사건을 조악한 미제는 지난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조선정책조치를 취하게 되자 실재하자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상호연습을 광범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엄습하 위협하였다.

미제는 이 전쟁연습을 초대형핵행공포화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핵잠수함 등 전투함선집단과 수많은 비행기를 투입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이번 연합해상훈련이 그 무슨 《동맹관계》의 《위력을 과시》하고 우리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데 목적이 둔것이라고 공공연히 뽐내면서 그 의의를 부각시켰다.

세계가 평하는바와 같이 미제가 이번 연합해상훈련을 전례없는 규모로 강화실시한것은 새로운 조선침략계획을 실현에 옮겨놓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이번 훈련의 중점중점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대공격을 우리 나라 근해에 접근시켜 강력한 미사일타격을 가한 다음 지상군을 벌리는데 기본내용으로 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도발은 자들이 하고 그것을 구실로 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이끌어간 미제의 책동은 거기에 제2조선전쟁의 불을 지피려는 무모한 군사적판관이었다. 이번 전쟁은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프리아스가 7월 25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저들의 군사적침략행위에 대처하여 전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는 미국의 침공이 개시되는 경우 베네수엘라는 즉시 미국에 대한 친원유공금을 차단해버릴것이라고 언명하였다.

## 어린이보호문제에 대해 언급

인도네시아대통령 수셀로 반방 유두오나가 7월 23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어린이보호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미국의 부당한 제안 배격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아브 에베카트가 7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부당한 제안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팔레스티나민족당국에 이스라엘과의 직접회담을 제안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팔레스티나령토에서의 유대인 《정착촌》건설이 중지되지 않는 한 직접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당국의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 단결을 호소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집권당이 통일사회주의당의 전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는 미국의 침공이 개시되는 경우 베네수엘라는 즉시 미국에 대한 친원유공금을 차단해버릴것이라고 언명하였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농업 및 농촌인재양성사업 중시

중국농부부가 최근 강소성 관산사에서 회의를 가지고 농업 및 농촌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농업 및 농촌인재양성사업을 농업 및 농촌경제사업의 우선적지위에 놓고 농업과학기술인재와 농촌핵심인재양성에 힘을 넣을데 대해 강조되었다.

농업부는 농촌핵심인재수를 2015년까지 1300만명으로, 2020년까지는 1800만명으로 늘일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아나나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공격적전에 의해 계속 북아나나고있다.

7월 24일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4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죽어갔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은 390여명에 달하였다.

## 예산적자, 경영형편 악화

미국에서 올해 9월에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 연방예산적자가 1조 4700억 달러로 늘어 또다시 최고기록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7월 23일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월남과 우즈베키스탄이 7월 27일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상호협조를 발전시키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7월 26일 우버와 베네수엘라는 식량, 에너지, 광업, 보건, 경공업부문에 대한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 백문규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백문규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백문규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7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1.2% 또 떨어지면서 3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피뢰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이 최근 그 무슨 《북의 태도변화》를 운운하면서 그것이 없다면 《출구전략》을 론할수》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참으로 카스롭고 뻔뻔스럽게 지없는 수작이다.

류명환이 운운한 《태도변화》란 우리더러 《천안》호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것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가. 피뢰외에 의사와 작당하여 꾸민 합선침몰사건은 이미 그 모략적진상이 날날이 드러났다. 보수세력이 《북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며 《조사결과》라는것을 꾸며냈지만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있다.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동족을 함포로 모함하며 대결전쟁책동에 미쳐난 보수세력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과 국제무대에서의 련이어 외교적참패로 궁지에 몰려있다. 그에 대해서는 구경특박을 차고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외세의 문을 두드려다가 망신만 당한 류명환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명환역도가 제편에서 우리에게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그것을 이른바 《출구전략》과 련결시켜 《배정》을 하는것은 도저히 태를 드는 격의 파멸적인 망동이다. 그것은 합선침몰사건의 책임을 거기에 우리에게 넘겨줘야 반공화국대결전쟁소동을 합리화, 장기화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드러내보여주고있다.

구태여 《태도변화》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피뢰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동족을 모해살할 불순한 목적됨에 사상 류제되는 반공화국모략군이 《천안》호사건을 꾸며냈고 피뢰외들이 그것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외세와 공모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은것도 그들이다. 일을 친자가 다름아닌 남조선보수세력당국인 사대를 수습하려는 그들이 웅담 할바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들이 우리에게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대해 사죄하고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권여치우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하며 우리에게 감히 《태도변화》

를 요구하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남강도의 억지주장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남조선보수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서 교훈을 찾고 동족과 무모하게 맞서는 비리성적인 《천안》호대용》자세에서 벗어날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보수세력은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높음이 수포로 돌아가고 세계면전에서 망신을 특별히 당한 지금에 와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보수세력대부에서 마저 《천안》호사건의 《출구전략》을 논하여 한탄하는 주장이 나오고있었는가. 사실 반공화국모략소동이 완전히 실패한 지금 피뢰외에게는 저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하는것외에 다른 출로가 있을수 없다.

문제는 보수세력이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아직도 미련을 품고 대결자세를 허물지 않고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집권층내부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불필요한 《천안》호대용》을 계속하고 출로를 찾았다는 요구가 높아가자 불만초조감에 사로잡혔다.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취벌도 견여지지 못하고 쓸데없이 맥만 뽑는 가련한 처지에 빠진 보수세력은 어떻게 할바를 세우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정당화할 심산으로 계속 뻔뻔해서 우리에게 그따위 황당할 요구를 하고있는것이다. 이번에 류명환역도가 《태도변화》니 뉘니 하는것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총과산으로 궁지에 몰린 대결광의 생때질에 지나지 않는다.

분별없는 대결광으로 피뢰외가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의 사태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류명환역도는 어디 가서 뉘내나 얻어맞을 그런 몰면치한 수작을 작작 늘어놓아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평화에 백해무익한 이런 흉악한 매국역적을 우리 민족이 용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류명환이 끊어지거는 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무질없는 망동이다. 역도는 기필코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것이다.

허영민